

‘AI 페퍼스’ 빛고를 배구 코트 달군다

오늘 광주시청서 창단식
레프트 박경현 추가 영입
내달 KGC인삼공사와 첫 경기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AI PEPPERS)가 연고지 광주에서 창단식을 갖고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7번째 팀으로서 공식 출발을 선언한다.

AI페퍼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갖는다.

창단식은 창단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2021-2022 정규리그에서 착용할 홈·어웨이·리베로 유니폼 디자인이 공개되고 감독 및 선수단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단식에는 장매투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진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무철 한

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창단식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팬들의 창단식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KBS N 스포츠와 네이버 스포츠 포털에서 생중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창단식 현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을 위해 AI페퍼스 인스타그램(/aipeppers)을 통한 Q&A 이벤트를 진행, 230여개의 질문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다른 SNS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AI페퍼스는 지난달 7일 KOVO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생팀 우선지명 권한으로 박사랑(대구여고)을 비롯해, 총 7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팀의 기틀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2015-2016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지명된 바 있는 대구시청 레프트 박경현을 추가 영입하며 16명의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투 대표이사는 “한국배구연맹과 각 구단, 광주시의 도움에 힘입어 손조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30일 연고지인 광주에서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발을 선언한다. 사진은 AI페퍼스 선수단. /AI페퍼스 제공

롭게 창단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며 “신생팀으로서의 도전과 패기를 바탕으로 스포츠팬들과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팬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페퍼스 선수단은 창단식 다음날인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광주체육, 목포여상 등과 연습경기 및 합동훈련을 통해 홈경기장인 페퍼스타디움(PEPPER STADIUM·염주체육관)에서의 첫걸음을 디딘다. 당초 계획된 광주 지역 팬 초청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방침 및 안전을 위해, 추후 다른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팀명 ‘AI PEPPERS’의 AI는 데이터 기반의 경기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최고의 배구단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동안 페퍼저축은행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배구단 역시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기 전술 및 배구단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다.

‘AI PEPPERS’의 AI는 배구단의 연고지인 광주시와의 동행을 뜻한다. 지난해 광주시는 AI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AI 중심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AI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광주시의 동반자이자,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미를 반영했다. /최진화 기자

임찬영·성유림, 소년체전 금빛 발차기

〈여수좌수영초〉 〈해제초〉

전남 초등부 금2·은1·동2

전남 태권도 초등부가 지난 27일부터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시작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남초초등부 여수좌수영초 임찬영과 여자초등부 해제초 성유림이다.

임찬영은 소년체전 태권도 남초초등부 미들급 결승에서 경기 천안성신초 권승민을 15-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유림은 여초부 플라이트급에 출전, 결승에서 경기 안산성안초 이재은을 11-9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목표청호초 김나현은 여초부 밴텀급 결승에서 경북 성주중앙초 김가람에 5-25로 지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수좌수영초 정형민과 여수동초 최승현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형민은 남초부 핀급 준결승에서 경남 진주신진초 구준성에 지면서 공동 3위, 동메달



을 기록했다. 최승현은 남초부 L-웰더급 준결승에서 전북 전주남초 정혁에 14-30로 패해 결승 티켓을 놓치며 3위에 올랐다. 전남 태권도 초등부는 지난 2019년 제48회



소년체전에서 금1 은1 동 4개를 획득했으나 2년 만에 열린 체전에서 금메달을 누리면서 메달 5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소년체전 중등부 경기가 열린다. /최진화 기자

“이번 목표 후회 없이 즐기다 오기”

남자 스켈레톤 윤성빈
베이징올림픽 대장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달 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 외곽의 엔칭 슬라이딩센터에서 진행되는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 연맹(IBSF) 훈련에 참석한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후회 없이 즐기고 오는 게 이번 올림픽 목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이 생애 두 번째 올림픽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윤성빈은 2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쉼대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022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윤성빈은 국제 스켈레톤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평창에서 압도적인 페이스를 펼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 메달 도전은 평창 때보다 곱절로 어려울 전망이다.

보통 올림픽 1년 전 올림픽이 열린 트랙에서 치러지는 테스트이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취소됐다. 지금까지 중국 선수들만 ‘올림픽 트랙’을 경험한 상태다.

중국 선수들이 이미 3000 넘게 트랙을 뒀다는 소문이 돈다.

윤성빈은 러시아, 독일 등 기존 강자들은 물론 홈 트랙의 커다란 이점을 안은 중국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메달을 딸 수 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하루 4~5시간씩 웨이트와 육상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린 윤성빈은 다음 주 중국으로 출국한다.

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엔칭 트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다.

IBSF가 엔칭 트랙 영상을 각국 경기단체에 배포했지만,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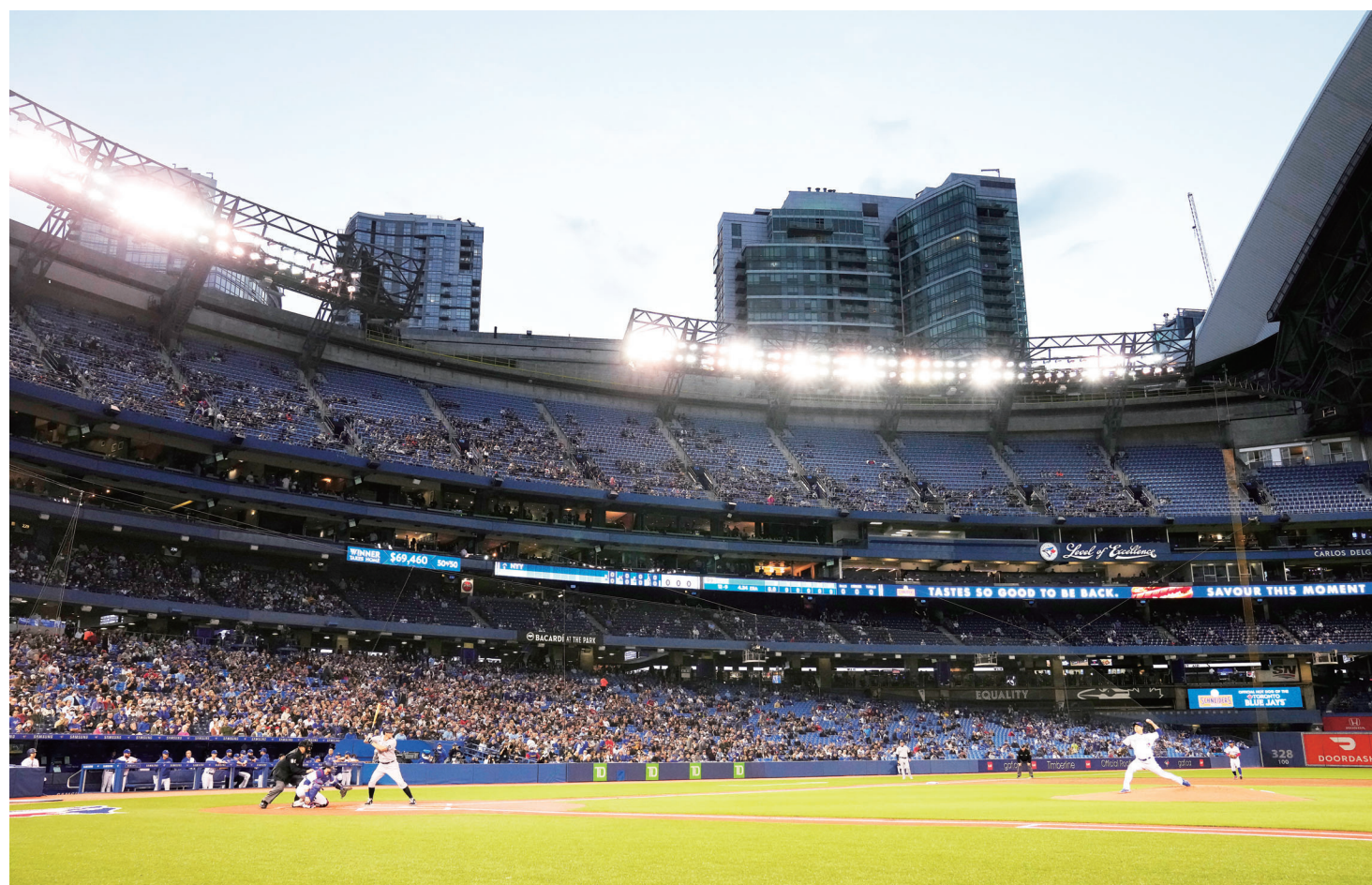
윤성빈은 “영상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타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영상을 아무리 본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일정을 마치 곧바로 유럽으로 건너가 3개월간 IBSF 월드컵을 8차 대회까지 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내년 2월 대망의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다.

숨겨진 일정을 앞뒀는데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윤성빈은 흔들림이 없다.

올림픽 준비에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윤성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극복해야 한다”라거나 “그냥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연합뉴스



올 첫 3만명 관중 허용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MLB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1회 초 공을 던지고 있다. 이날 로저스센터는 코로나19 확산 후 처음으로 3만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AP·연합뉴스

류현진, 3경기 연속 ‘조기강판’
홈런 23개 허용... 한 시즌 최다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부상 복귀 전에서도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했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6안타를 내주고 3실점 했다. 삼진은 3개를 잡

고, 볼넷 1개를 허용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4.34에서 4.39로 더 나빠졌다.

5회 강판 상황은 무척 아쉬웠다.

2-로 앞선 5회초 1사 후 류현진은 히오 우르셀라에게 우전 안타, D.J. 레메이휴에게 볼넷을 내줘 1, 2루에 몰렸다.

앤서니 리조는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류현진의 시속 141km 커터를 푹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토론토 좌익수 코리 디커슨의 송구가 홈을

향하던 2루 주자 우르셀라를 맞고, 무리하게 홈으로 파고 들던 우르셀라는 여유 있게 득점했다. 결국찰리 몬토요 감독이 마운드로 올라와 류현진의 강판을 지시했다.

류현진이 3경기 연속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로 내려온 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절이던 2019년 8월 24일 뉴욕 양키스전(4%이닝 9피안타 7실점), 8월 30일 애리조나 다

이아몬드백스전(4%이닝 10피안타 7실점), 9월 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4%이닝 6피안타 3실점) 이후 2년 만이다. /연합뉴스

메시 PSG 데뷔골... 맨시티와 UCL 조별리그서 2-0 완승

리오넬 메시(34)가 새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에서 마침내 데뷔골을 터트리며 팀의 승리에 앞장섰다.

PSG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이드리스 케예의 결승골과 메시의 썬기골을 앞세워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를 2-0으로 제압했다.

이탈 클럽 브뤼헤(벨기에)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긴 뒤 따낸 첫 승리다.

지난 시즌 UCL 준결승에서 맨시티에 1, 2차전 합계 4-1로 패했던 PSG는 이날 지난 패배를 설욕하고 조 1위(승점 4)로 올라섰다.

더불어 PSG는 기다리던 ‘이적생’ 메시가 득점포를 가동한데다 메시와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로 이뤄진 공격라인이 맹활약해 활짝 웃었다.

1승 1패가 된 맨시티는 조 3위(승점 3)에 자리했다.

PSG는 전반 8분 만에 결승골을 터트리려 분위기를 주도했다.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거친 패스가 맨시티



수비수의 발에 맞고 흐르자 케예가 이를 잡아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도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전반 26분 라힘 스티링의 헤딩 슛이 골대를 맞

치고, 베르나르두 실바가 곧바로 세컨드 볼을 잡아 원발 슛을 시도한 것도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삼켰다.

5분 뒤에는 중앙 칸셀루의 오른발 중거리 슛이 PSG 골키퍼 잔루이지 폰타룸바의 선방에 막혔다.

한 골 차 리드를 지키며 전반을 마친 PSG는 후반 메시의 골로 승리에 썬기를 박았다.

후반 29분 공을 잡고 중앙으로 쇄도한 메시는 전반에 있던 음바페와 짧게 패스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 아크에서 원발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나 PSG의 유니폼을 입은 메시가 새 소속팀에서 터트린 데뷔골이다. /연합뉴스